

# 美 태양광 상계관세 적용 국가 확대... 韓 반사이익 기대감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 부과  
국내 제품 수입비중 상승 관측  
업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



한화큐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태양광 발전소 전경

/한화솔루션

미국이 최근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도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으나, 업계에선 예상만큼 예비 관세율이 높지 않아 내년 초 최종 관세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셀·모듈에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국내산 제품과 경쟁할 경우 국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수출 제품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이며 90일 전부터 수입된 제품들까지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미국의 무역 제재가 강화되자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을 크게 늘렸다. 미국의 수출 관세를 피하고자 부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조립한 뒤 이를 베트남산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한 것이다.

이에 한화큐셀과 퍼스트솔라 등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은 동남아시아 4

개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아 생산비용을 밀도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관세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동남아산 패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모

듈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25.6%), 태국(22%), 말레이시아(15.1%) 등으로 모두 미국 상계관세 부과 후보들이다. 예비 관정이 최종 관정까지 이어진다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았던 국내 제품의 수입 비중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르다는 지적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산 상계관세가 최소 15%~2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태국을 제외하고 이에 못 미쳐 시장 기대를 밀돌았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크게 인상하지 않은 이유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신규 설비 설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로 당장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큰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관정에서 관세율이 인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아 ‘더 기아 타스만’ 티저 이미지.

## 기아, ‘타스만’ 티저 공개

기아의 야심작이자 첫 번째 픽업트럭인 ‘타스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는 16일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 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

영상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

### ‘북5 프로 360’ 출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PC ‘갤럭시 북5 프로(Pro) 360’을 오는 28일 국내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5 Pro 360’을 삼성닷컴에서 단독 판매하며, 공식 출시에 앞서 27일까지 출시 알림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코드명 루나레이크)’를 탑재한 코파일럿+ PC로 보다 뛰어난 AI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갤럭시 북5 프로 360의 AI 기능을 활용해 창작, 커뮤니케이션, 자료 검색 등 더 많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40.6cm(16형) 단일 사이즈이며,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 두 가지이다. 프로세서와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242만 6000원, 257만 6000원 두 개 모델로 출시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SK케미칼

### SPS 라인업 강화

SK케미칼이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Sustainable Packaging Solution, SPS)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SK케미칼은 재활용성과 성형·가공 다양성을 높인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 클라로 300 (ECOTRIA CLARO 300)’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코트리아 클라로 300’은 투명성, 내화학성 등 코폴리에스터의 고유 물성과 재활용성을 갖추면서도 압출 블로우 성형 (EBM, Extrusion Blow Molding) 이 가능한 소재다.

SK케미칼은 대용량 생수통, 주스, 음료 등 투명성이 필요한 대형 용기 시장을 적극 공략해 EBM 용도 시장에서 코폴리에스터 판매량을 약 3만톤 수준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차현정 기자

# 마세라티, 럭셔리 전기차 시동... ‘폴고레’ 라인업 선배

‘그레칼레 폴고레’ 등 신모델 공개  
“전기차도 마세라티 DNA 확고히”

이탈리아 럭셔리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내연기관부터 순수 전기 모델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레칼레’의 폴 라인업을 국내에 공개했다.

마세라티는 한국 시장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전기 모델 ‘그레칼레 폴고레’에 이어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등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마세라티는 1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앤리조트 애스톤하우스에서 ‘일상의 경험을 특별하게: 하우스 오브 마세라티’ 행사를 열고 브랜드 전력과 함께 그레칼레 폴 라인업을 공개했다.

마세라티에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전기 모델 폴고레가 추가되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탈리아 럭셔리를 추구하는 마세라티 고객들은 자신이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



마세라티 코리아는 16일 ‘일상의 경험을 특별하게: 하우스 오브 마세라티’ 행사를 열고 그레칼레 폴 라인업을 공개했다. /박대성 기자

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마세라티 지오반니 페로시노 CMO는 “럭셔리 세계는 선택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폴고레 옵션을 더함으로써 큰 메뉴가 생기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모든 것을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폴고레’는 이탈리아어로 ‘번개’라는 의미다. 마세라티의 퍼포먼스와 사운드 매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

지를 담았다고 한다.

마세라티는 이름에 담은 의미대로 전기차라는 특수성과 타협하지 않고 하이퍼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400V 기술 기반의 105kW CATL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최대 820Nm의 토크를 발휘한다. 최고 410kW의 출력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220km/h다.

# 현대차·기아, ‘프레스 금형 자동설계 시스템’ 개발

“제조 생태계 기술발전 기여할 것”

“수치 입력만 마치면 복잡한 금형 설계가 ‘뚝딱’”

현대자동차·기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량용 프레스 금형 설계를 자동화하는 ‘프레스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이하 자동 설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레스 금형은 자동차의 외관을 생

산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차량의 트렁크, 후드, 펜더 등을 제작할 때 활용한다. 구조에 따라 하나의 외판 부품에 총 3~5번의 프레스 공정이 필요하다. 공정마다 각기 다른 금형을 사용한다.

현대차·기아는 금형 설계를 위한 기술 문서와 설계 조건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금형 설계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자동 설계 시스템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

수치만 입력하면 최적의 프레스 금형 설계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자동 설계 시스템을 활용하면 프레스 금형 설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약 75%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계 오류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일관된 고품질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2020년 프레스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모든 프레스 공정의 금

형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차·기아는 자동 설계 시스템의 강점을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프레스 금형 자동 설계 시스템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의 데이터화를 통해 구현한 독보적인 시스템”이라며 “고품질의 차량 생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공정으로 확대하고 제조 생태계 전반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세계 최초